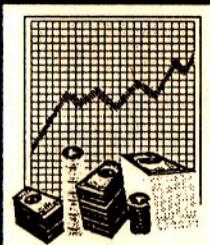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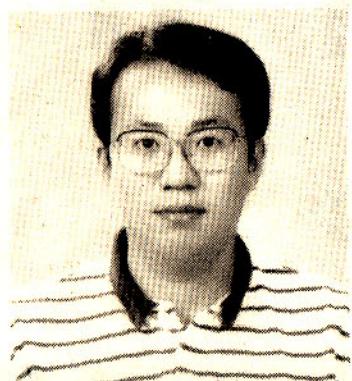
經濟人 手帖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카나다 進出戰略

못할 짓 하기(?)

김영수 (경제학박사)



궂은 일과 몹쓸 짓③

거기다가, '眞理'가 어떻고, '象牙塔'가 어떻고, '학문의 길'이 어떻고 '지식의 진보'가 어떻고 하면서, 살살 달래면, 이 교수라는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친구들은 월급을 아주 조금만 주어도 얼마인지 부려 먹을 수가 있다. 가끔 가다 구시렁 구시렁 불평이나 하면서 말이다. (천만 다행히 필자의 전공은 국제금융이어서 필요한 교수요원이 택도 없이 모자란다.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필자는 다른 교수들보다 엄청 많은 월급을 안주면 일 안한다고 아예 처음부터 독점의 횡포를 부릴 수 있었고, 사람 좋은 우리 학장님께서는 필자의 양탈을 귀엽게 보아 주셔서 필자는 필자의 능력에 비해 과분한 많은 월급을 받는 天運을 누렸지만, 그것은 운이라면 소시적부터 억세게 좋은 필자의 이야기이고 한 대학에 5%도 안되는 특별케이스였다.) 사실 교수들이 돈을 잘 못번다는 것은 교수들은 그 이야기를 밖에서 절대로 하지 않기로 서약을 하고 있고 그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서로 상호 감시를 하므로, 단지 사모님들

을 통하여서만 가끔 밖으로 새어 나오는 이야기이다. 필자가, 직장 동료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배신하고 교수라는 직업의 경제적 별볼일 없음을 공개적으로 깨불기는 것은 다름 아니라, 카나다에 오신 한국 분들 중, 경제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수들이 경제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고생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어서이다. 즉, 체면과 다른 사람의 이목 때문에 경제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다. 또, 가슴아픈 이야기이지만, 이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필자가 지금까지의 소단락들에서 설명한 여섯 가지의 돈 버는 경로들 중 해당사항이 한

두어개 없는 한, 돈을 많이 벌면서, 몸도 편하고, 체면도 서고, 품도 나는 직업이나 직장은 찾기가 아주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아예 그런 것은 기대하지도 말라고까지도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필자는 지금까지 銀이 억세게 좋아 체면도 서고 돈도 과분하게 받는 그런 직장에 계속 있었지만, 언제던지 끽은 일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작년 9월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사실, 처음 얼마간은 사람을 찾아 다니면서, 굽실굽실하여야하고 돈을 받아 낼려고 별별 아양을 다 떨어야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공무원 생활과 교수 생활만 하던 필자에게는 상당히 어려웠던 것이었음을 고백한다. 그렇지만, 사업을 시작하면서 필자는 마음 속으로 여러번 크게 외쳤다. '나는 연탄 리아카도 끌 수 있고, 번데기 구루마도 끌 수 있고, 아이스케이크 장사도 할 수 있다. 얼굴에 환절을 하고 상자 속에 들어가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우리 국장에 오라고 북을 치라면 칠 수 있다. 예수 傳道를 하겠다면서, 路傍에서 노래도 부르기도 할 판에, 돈을 벌

때라고 끽은 짓을 할 것이 무어냐!'라고. 그리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푸근하여지고 만사에 자신이 그렇게 생길 수 없었다. (사업비밀이 되어 놓아서 장소와 아이템을 지금을 밝힐 수 없지만) 만약 어느 날 어느 골목 길에서 그런 일들을 신나게 하고 있는 필자를 독자들이 만나시면 절대로 놀라시거나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필자가 그 때 팔고 있을 바로 그것을 하나라도 값을 까지 마시고 제값쳐서 사주시기만을 바랄 뿐이다. 즉, '못할 짓'을 하면 돈을 번다. 그런데, '못할 짓'들 중에는 '나쁜 일' 즉, '몹쓸 일'이 있지만, 그냥, '궂은 일'이라고 분류할 것들이 있다. 바로 그것, 다른 사람들이 체면때문에 하지 않는 그 일을 할 용의가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사실, 필자는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라는 용어보다는 銀道라는 말을 쓰기를 즐겨하는데, 주말마다 필자의 亂文을 서너달 대하여주신 지금에 와서는 왜 필자가 그런 용어를 쓰기를 좋아하는지를 독자들께서 어렵겠느냐마는 이해하여주시기만을 기대할 뿐이다. 銀道書 1장 1절, '돈에 솔직하여져라. 그러면 돈도 너에게 솔직하여 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여러 말을 하였다. 교수 동료분들의 넓으신 아량과 깊은 이해도 바라마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서, 필자가 위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던 것을 다시한 번 다짐하고 짚고 넘어가자. 필자는 돈버는 방법으로서 마약의 생산과 거래, 유괴 운영, 도박장 운영,

인신매매, 密酒 담그기, 환경오염규정어기기, 포르노 산업 따위를 권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위에서 든 '극단적'인 예들은 개념정의가 까리한 이 '못할 짓'의 개념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든 그야말로 '극단적'인 좋지 않은 예들일 뿐이다. 필자는 이런 일들, 즉 '못할 일'들 중, '몹쓸 일'에 해당하는 일들이 그리 오래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극히迷信적이라고 불리울 수도 있는 그려한 이유때문이다.

필자는 이상하게 어려서부터 주위에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과 많이 보아왔다. 그 중에는 정정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근면성실로 많은 돈을 모은 사람도 많았고, 또 그렇지 않은 방법들로 모은 사람들도 많았다. 사기치기, 다른 사람에게 재판상습적으로 걸기, 일단 무슨 돈이던지 무조건 떼어 먹거나 쟁여 먹다가 탈이 나서 감옥에 들어갈 정도가 되면 감옥 가기 직전에 도로 계워 내놓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먹어버리기, 그리고, 남의 돈 떼어먹기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아이들이 아파 할 수 없이 남의 집 일하시는 식모아줌마의 3달치 월급, 동생이 일곱 여덟이나 되어 학업을 중단하고 남의 차몰던 기사아저씨의 추석보너스라고 이 몹쓸 사람들의 魔手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는 것도 필자는 보아왔다) 그들의 흥망 성쇄도 친구의 집, 친척의 집처럼 아주 가까운 차원에서 관찰 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심지어는 우리 집안에

아랫 면에 계속

전히 손해보는 장사임이 틀림이 없다는 것이다.

자! 이 단락을 정리하자. 다른 사람들이 '못할 짓'을 내가 하면 나는 돈을 벌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못할 짓'에는 '궂어서 못할 짓'과 '나빠서 못할 짓' 두 가지가 있다. '궂은 일'을 하여서 돈을 버는 것은 좋은 일이어서 필자가 권장하지만, '몹쓸 짓'을 하여서 돈을 버는 것은 필자가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

자! 우리 다음단락으로 넘어가자!

-필자 김영수 / Cranewood Corp 대표 682-8686-
다음호부터는 〈三貧의 痛와 七去의 經〉

그 집주인 놈은 그러고도 자손이 잘되라고 절에다가 施主를 한다. 차라리 베록이 간을 빼어먹지. 그러고서도 돈이 많다고 거들먹거린다. 이 사람들의 사고 방식 속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나쁜 짓도 할 수 밖에 없다'의 수준을 넘어서서,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될 수 있으면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벌고 싶다'의 경지에 다다를 정도로 악이 넘쳐흐르는 경우가 많았다. 필자가 아는 몇몇 사람은 그 단계 조차도 훨씬 넘어서서, '돈이 안벌려도 좋다. 나는 나쁜 짓을 하고 싶다'라는 완전 惡鬼의 경지에 들어간 사람도 없지 않아 보았다. 필자는 어려서부터 그 사람들이 무엇엔가 죄운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 사람들이 하나 둘 멀망하여 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有限한 생명'을 가진 약한 人間들